

보도시점 2023. 6. 16.(금) 08:30 배포 2023. 6. 16.(금) 08:30

하반기 수출·투자활력 제고 및 물가안정 기조 정착 노력 강화

-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속 추진
 - 여름철 농축산물, 식품·외식물가 등 안정적 관리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차질없이 준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16(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❶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기재부), ❷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농식품부), ❸주력 수출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산업연)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산업연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하반기에 대체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기업 애로해소, 수출 다변화 노력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불안에 대비하여 정부 비축·계약재배 확대, 관세율 인하조치 등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지속 경감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경기반등 및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이종민 (044-215-2811)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나,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¹⁾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입니다.

* '23년 성장전망(상→하반기, %) : <KDI('23.5월)> 0.9 → 2.1 <한은('23.5월)> 0.8 → 1.8

우리 경제 회복의 주요 관건인 수출의 경우
금년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5월 들어 대중(對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²⁾되고,
금주 발표된 6.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1.2%)한 것도
이러한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수출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³⁾하는 등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5) 93.5 (9) 70.7 ('23.1) 41.1 (2) 31.2 (3) 46.9 (4) 35.4 (5) 35.1

2) 對中 수출(억불): ('22.12) 112.0 ('23.1) 92.1 (2) 98.8 (3) 104.7 (4) 95.2 (5) 106.2

반도체 수출(억불): ('22.12) 90.6 ('23.1) 60.0 (2) 59.7 (3) 86.0 (4) 63.8 (5) 73.7

3) 수출 증감률(상반기→하반기, %): (반도체) △35.1 → △ 12.8 (디스플레이) △32.1 → △0.8
(철강) △8.1 → 3.8 (조선) 19.7 → 50.8 (이차전지) 10.7 → 9.2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 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속화하고,
원스톱 수출 119 서비스⁴⁾, 대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5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39개월 만에 전년동월비 △0.3%로 하락⁵⁾하고,
그간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식품·외식 물가⁶⁾도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둔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축산물 특성,
여행·외식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식품·외식 가격 불안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하여
배추·무 등의 정부 비축⁷⁾ 및 계약재배⁸⁾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은 관세율 인하조치⁹⁾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 민·관 합동팀이 지방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수출애로를 직접 청취·해소(23.6월~)
국가산단 권역별 순회방문(월1회): 수도권(반월시화) → 충청·강원권(오송) → 경상권(구미) → 전라권(광주첨단) 順
5) 농축수산물(% 전년비): ('22.7)7.1 (8)7.0 (9)6.2 (10) 5.2 (11) 0.3 (12)0.3 ('23.1)1.1 (2) 1.1 (3)3.0 (4) 1.0 (5)△0.3
6) 가공 식품(% 전년비): ('22.7)0.5 (8)0.7 (9)0.5 (10)1.6 (11)0.5 (12)1.1 ('23.1)0.5 (2)1.3 (3)0.5 (4)△0.2 (5)△0.2
외식서비스(% 전년비): ('22.7)0.7 (8)0.7 (9)0.5 (10)0.3 (11)0.3 (12)0.5 ('23.1)0.5 (2)0.7 (3)0.8 (4) 0.7 (5) 0.2
7) 배추 17천톤(전년비 45.3% ↑), 무 6천톤(전년비 200% ↑) 등
8) 여름배추 55천톤, 여름무 50천톤, 시설채소(5품목) 15천톤 등
9) 돼지고기 할당관세 15천톤 긴급 도입(6~9월), 건고추 TRQ 3천톤 7월 중 도입

아울러,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¹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¹¹⁾ 및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¹²⁾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지속 경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및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은 계획입니다.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10) 사료구매자금(1조원) 및 비료가격 인상분(80%, 2667억원) 지원

11) '22년 67개 → '23년 70개 (+3개)

12) 재외동포(F-4) 음식점업 취업제한 해제('23.5.1일~) 등